



#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은기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 김은기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 여파로 많은 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가 동반 위축,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은 다소 온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의 성장 위축과 지난 2년간 급상승한 금리 후유증이 본격화할 불확실성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의 영향을 받아 고금리, 소비자물가 지속 상승,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젊은 세대의 취업률 저하 등으로 인한 세대간 또는 빈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 전망까지 꺾이며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공군전우회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2023년도 계획사업과 주요행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회원관리 및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발전협회는 지난 6월15일 '우주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항공우주력연구' 논문집 제11집을 발간 하였으며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군사학술 용역과제연구를 통해 연구위원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쟁 후 지난 70여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해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지난해 창군 74주년을 맞은 우리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를 운영하는 첨단공군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한국형전투기인 KF-21 시제기가 출고되어 우리가 만든 최신 전투기로 우리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공군을 거쳐 간 모든 공군인과 현역 공군장병들이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기에 공군인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두 곳의 전쟁이 글로벌 안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북한의 비핵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핵·미사일 고도화와 9.19 군사합의 완전파기로 한반도의 군사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안보 능력 구비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을 정례화 및 제도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국제공조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군은 북한의 도

발에 대한 억제력을 주도함과 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도 대내외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회원간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국가와 공군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도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공군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역량을 동원하여 측면 지원을 다할 것이며, 또한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지부/지회와 공군발전협회의 모든 활동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공군'인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김은기

## 2023년도 탑건 김우영 대위에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 김은기 회장은 12월 19일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2023년도 탑건으로 선정된 김우영 대위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했다.

'1000점 만점에 1000점'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 F-15K 전투기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해 공군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에서 획득했다. 압도적인 점수로 '2023년 공군 최고의 명사수 조종사'가 된 김 대위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탑건(Top Gun)' 칭호가 부여됐다.

김 대위는 지난해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다. 공대지 폭격은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능력을 평가한다.

김 대위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고작 15cm. 3km 상공에서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cm는 점보다 작게 보인다.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

김 대위는 2020년 11전비에 배치됐다. 주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위는 "전투조종사로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 중"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23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 참석

2023 공군작전 전승기념식이 10월 26일 강릉기지에서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전우회장과 중앙회 회원, 공군전우회 대구지부/강릉지회원, 강릉시장,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각 기관단체장, 강릉시민과 학생 및 18전비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전투 역사, 기념사, 회고사, 축사와 6·25 참전용사에게 기념꽃다발 전달, 강릉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및 공군가 제창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식후행사로는 의장대 공연, 승호리 철교 폭파장면 재현, 블랙이글스 에어쇼 및 행사장 관람이 있었다.

도착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격을 개시하였고 전열을 정비한 후 강릉기지에서 본격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공군 최대전적으로 평가받는 승호리철교 폭파작전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등 6·25전쟁기간중 총 7851회의 공군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 당시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우리공군은 전쟁 발발 이틀후인 6월 27일 10명의 조종사를 일본으로 보내 미군으로부터 10대의 무스탕전투기를 인수받아 7월2일 대구기지에

당일 오후에는 별도로 18전비 지휘관 참모와 장병 및 강릉지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1고지 전투 항공지원작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 공군전우회 회장단, 전투부대 위문방문

공군전우회 회장단 7명은 12월 7일 국방의 최일선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 제5관제대 및 제188-2포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방문단은 세탁기 10대와 스낵류 500박스를 방문부대에 전달했다. 또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부대 주요작전 및 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부대 지휘관리에 대해 조언하고 현역 근무시절 경험담을 들려줬다.

무수행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장병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며 "공군전우회 전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계 작전태세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151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11월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151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김학주소위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장교 206 명은 약 1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전투 지휘능력을 배양했으며, 행사는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순으로 진행됐다.//

### 공군 6·25 출격 원로조종사에 연말 위로 선물

공군전우회와 공군학사장교회 공동주관으로 공군 6.25 출격원로조종사에게 연말 위로 선물 보내기를 했다.

위로 선물은 12월 1일 주소지가 확인된 7명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취임인사차 예방

지난 10월31일 취임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1월 17일 취임 인사차 본회 김은기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단체는 우리 공군이 더욱 강한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공군전우회가 예비역 대표 단체로서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시의 경험담 등을 이 총장에게 전해주었다.

신임 이 총장은 "어떤상황하에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공군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23년도(제21회) 공군전우회 친선골프대회

공군전우회 주관 2023년도(제21회) 친선골프대회가 11월 8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동호회원 14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개인전), 2부(단체전)로 구분 개최하였고, 대회 결과 1부 행사에서는 17명의 조별 우승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근접상에는 정우회 진광철, 장타상에는 인사회 정갑순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 30만원, 인사회 20만원 및 전우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후원업체로는 동국제약에서 경품 10점과 참가자 전원에게 관절크림 1개씩을, 그리고 전우회에서도 경품 10점을 각각 지원하였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우승 학사회, 준우승 은하회, 3위는 황성회가 차지했다. 한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많은 협찬을 하였는데 학사장교회 150만원, 은하회, 황성회, 해동청회 각 70만원, 원우회 60만원, 정우회, 수송회, 시우회, 정동회, 방공회에서 각 50만원, 무스탕전우회, 이글회, 항공회, 수지회,조간회에서 각 40만원, 관리회, 보급회, 14-18회, 19-23회, 군무원회, 청운회에서

이번 대회는 모든 참가선수들에게 많은 시상품과 참가상품 제공 및 경품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진과 동시에 골프동호회 23개단체 대표선수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친목 도모 및 공군전우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공사총동창회 신임 회장단, 취임 인사차 예방

2023년 1월 1일부로 취임한 장식환 공사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 일행이 1월 3일 취임 인사차 본회 김은기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본회 김 회장은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예비역 단체 발전과 공군 발전을 지지/후원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공군통역장교회, 공군전우회 산하단체로 공식 등록

공군통역장교회(회장 심건)가 공군전우회 산하단체로 11월 1일 공식등록했다. 공군통역장교회는 1990년부터 공군통

역장교로서 복무하고 전역한 150여명의 전우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이다.//

###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원 초청 위로행사



김은기 공군전우회장과 정경두 공사총동창회장은 12월 8일 공군호텔에서 참석이 가능한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이하 순조회)회원 23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행사를 가졌다.

김은기 회장은 “우리 공군은 이제 첨단 공군으로 발전 하였다”며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온 위대한 어머니”라며 “순조회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송우영 순조회장은 “두 단체가 향

상 순조회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순조회원들은 항상 공군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조회는 1976년 8월 창립되어 현재 약 47명의 회원이 있으며 순직조종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군사관학교에 건립된 ‘영원한빛 추모탑’ 참배와 어려운 회원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임원진, 인사차 내방



공군인터넷전우회(회장 이종근) 이병권 사무총장(예 소장, 공사 33기)과 남유열 사무국장(예 대령, 공사 35기)이 11월 27일 인사차 공군전우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 사무총장은 “공군인터넷전우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공군전우회 산하단체로

공식가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한 후, 공군인터넷전우회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보고했다. 본회 김 회장은 “공군과 공군전우회 발전을 위해 공군인터넷전우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회장단 내방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김진홍 회장 외 1명이 12월 20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김진홍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주요활동사항들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본회 김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활발한 활동 및 모교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한다”고 말했다.//



### 공군발전협회,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와 협약서 체결



(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와 (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간의 항공우주발전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식이 11월 29일 공군호텔에서 총 10명의 양개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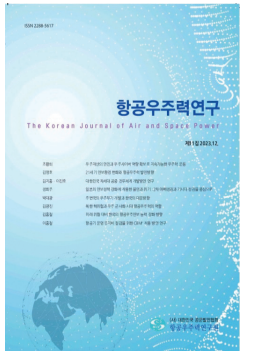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두 법인은 체결식을 통해 항공우주력과 산업발전을 위한 조석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 제11집’ 발간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은기)는 공군 예비역 및 현역들의 군사학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우주력 연구’ 제11집을 12월 1일 발간했다.

연구지에는 우주자산의 안전과 우주사이버 역량 확보로 지속가능한 우주력 운용(조환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 21세기 안보환경변화와 항공우주력 발전방향(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일본의 안보정책 강화에 작용한 불안과 위기(정희주, 항공우주력연구원), 핵위협과 우주군사화시대 항공우주력의 역할(정주호, 숙명여대

석좌교수) 등 8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지인 ‘항공우주력 연구’는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한 안보전문지로서 관심 있는 국내 안보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안보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군인터넷전우회, 공군전우회 산하단체로 공식 등록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 이종근)가 공군전우회 산하단체로 11월 1일 공식등록했다.

한편, 공군인터넷전우회는 공군 전역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모임으로 2000년도에 창립되어 현재 중앙회 산하에 19개 지부와

7개지회로 17,5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부대방문, 홍보활동 등 공군발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부영빌딩에 있다.//

## 공군전우회 2024년도 정기 총회 개최 안내

- 일시: 2024. 3. 27 (수) 17:00-19:00
- 장소: 공군호텔
- 참석: 공군전우회 정회원 (초청장 별도발송)  
전국 각 지부·지회장 및 사무국장 (초청장 별도발송)
- 내용: 회무보고 및 안전심의  
회장 이·취임식

### 공군참모총장이·취임식



이영수 제41대 공군참모총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을 다짐했다. 공군은 10월3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0·41대 공군참모총장이·취임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각 군 총장과 주요 지휘관, 공군본부 부·실·단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확고한 군사대

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17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및 기획관리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정진화 총장은 이날 40년 가까운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공군은 12월1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공군본부 주요 지휘관·참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대회는 △공중사격 분야 △공중투하 분야 △탐색구조 분야 △항공정찰 분야 등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다. 항공정찰은 새로 부활했다.

공중사격 분야 단체·개인 수상자들도 대통령상과 국방부장관상 등을 받았다. 단체 종합 최우수 대대는 11전비 102전투비행대대(F-15K), 8전투비행단(8전비) 203전투비행대대(FA-50), 10전투비행단(10전

비) 201전투비행대대(F-5)가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중사격 분야 개인에서는 각 전투기 기종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명이 뽑혔다. FA-50 8전비 전윤찬 대위, F-5 10전비 김민주 소령, F-4E 김영석 대위, F-35A 17전투비행단 원도연 소령, F-16 19전투비행단 임병현 대위, KF-16 20전투비행단 김기영 대위가 주인공들이다.

이 밖에 공중투하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이재현 소령(진), 탐색구조 6탐색구조비행전대 김동현 소령, 항공정찰 39정찰비행단 박주환 대위가 각 분야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돼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 한·미·일 공중훈련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월20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이 제주 동방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와 연계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올해 미 전략폭격기의 전개는 13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2번째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의 능력을 강화하는 공동 대응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 공군, 서울에 AI·UAM 개발 ‘신기술융합센터’ 설립



서울에 항공우주무기체계 개발을 도울 ‘공군신기술융합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이 기관은 수도권에 모여 있는 민간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빠른 무기체계 개발·획득을 돕는 등 ‘국방혁신 4.0’ 구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공군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서울시의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지원한다. 공군과 서울시는 11월30일 서울시청에서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공군, 항공우주법 세미나



공군은 11월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다짐했다. 공군은 10월3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0·41대 공군참모총장이·취임식을 열었다.

행사는 항공우주발전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우주 분야 정책·산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진영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계의 우주 개발동향과 미국의 우주 정책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우주 분야의 법적 쟁점과 이슈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우주 임무 수행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우주 잔해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주 쓰레기 현황과 국제규범을 안내했다.//

###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F-35A 스텔스전투기 등 공군 핵심 항공전력들이 11월22일 적 이동식 미사일과 발사대를 타격하는 공중 훈련을 전개했다.

공군은 이날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동부 광역화 구역에서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공중전투사령부 예하 전투비행단이 참가했다. 17전투비행단 F-35A를 비롯해 F-16, FA-50 전투기 20여 대가 동원됐다. 훈련은



적의 이동식 지대공미사일(SAM)과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